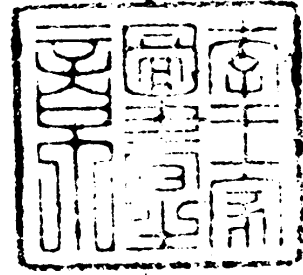


加髡申禁事目

全

赤裳山城



加恩申禁事目

聖教

癸亥

十一月初五日

太臣諸臣入侍時

傳曰加恩之禁一言而蔽之曰亟可復也天下

無萬全之慮亦無兩便之事予於是禁獨以為

及是由奢入儉非萬全乎用夏變夷非兩便乎

况吾

先王成憲而未克永遵而久傳即予耿苑輪囷

嘗欲復其舊而後已者於乎

先大王五十年神功大業非予小子所敢模

文庫所藏
寄贈本

畫而謹稽成憲之大者其目有五曰減正也曰
濬川也曰禁酒也曰互婚也曰去鬣也上二件
舉而措之累數十年民蒙字恤之澤人免沈
墊之患而下三件之暫施旋格非出

先王本意攷之國乘可按而知之然行酒重
祀典也重民命也禁亦聖德行亦聖德決
不敢更或議到互婚利害姑未敢質言最是宜
革而易祛者莫勝於加鬣故曰禁加鬣即明
聖志紹盛烈之一端云爾然因廷議之不一
齎志多年迄今因循近幸鴻臚抗論端揆繼陳

予一聞而犁然再聞而渙然今筵乃歷詢大臣
諸臣斷而決之大抵加髡之為據見於禮經乎
法書乎沂其本本非美制始也緝髮之容便成
重首之飾爭尚夸大滋致翔貴汰靡者不顧傾
產貧窶者幾至廢倫弊斯極矣在所矯救國中
婦女加髡一切革祛祛髡專為祛奢制雖殊而
飾如舊烏在乎申令之意若其禁制與代式付
之廟堂定成事目以聞令行日子京師限以陽
復日諸道限以關到後二十日莫曰婦女服飾
無關於政治惟予斷斷苦心在於明 聖志紹

盛烈此六字而從今以往可以由奢而入儉用
夏而變夷矣但搢紳大夫之怵惕榮幸感欣交
中雖在婦人女子亦庶幾風動而影從豈不誠
休哉美哉我東俗習一有法令輒以不持久為
口實令出惟行不惟及金石可泐此禁不可弛
凡厥臣僚之立予朝者孰敢更以加髮一事煩
聞乎典則已完期日且定令後不從令者家長
坐罰即有司存焉咨爾中外臣庶須各聽悉莫
犯邦憲

舉條

今十月初三日大臣有司堂上入侍時
上曰禹禎圭疏中鬣髻一款有爛商回啓之教
矣其果何以為之耶領議政金致仁曰鬣髻之
弊昔年始禁而旋弛者蓋無可代之物焉故
耳今自上特下傳教嚴禁鬣髻可代者亦為
明教則士夫閭巷自當遵行痼弊可以永除矣
左議政李性源曰鬣髻一事實為目今痼弊不
可不及今變通矣右議政蔡濟恭曰臣於鬣髻
事業欲一陳所懷而頃問領相則領相有持重
之意故姑且趑趄而實有耿耿者矣蓋今莫大

之弊蔑有加於鬚髻雖儒生至窮之家非六七
十兩錢貨無以買賣如欲成樣費了數百金賣
田賣宅之外無他道理而有田宅者亦幾人乎
以故有子娶婦者以其不得為鬚髻婚嫁六七
年不得行見舅姑之禮以至廢倫者指不勝屈
今當勵精圖治之辰絲毫民瘼盡心除去而乃
於此莫大之弊有若置之於無奈何之域者何
也諸議以爛商可代之物為言而自上斷然
決定使一國之內不復戴鬚髻則可代之物特
節目間事不如是則臣恐今日明日未有究竟

之期矣

上曰有司堂上亦陳所見可也戶曹判書徐有隣曰髡髻之禁到今申明孰敢曰不可而先講代用之制仍著禁髡之令恐合事宜矣禮曹判書李在簡曰髡髻之弊不可不及今變通而況以繼述中一事為教惟在斷而行之耳吏曹判書鄭昌順曰臣亦以此事有所酬酢於大臣者領相之意亦非以為不可禁但可代之制未有的定故有所持疑而苟欲祛奢莫先於此臣以大僚酬酢傳於諸宰則莫不聳聽皆言當禁

諸宰之言如此則一世之議可以推知家長之見皆然則婦女之論亦必無異髡髻之當禁孰不以為然乎刑曹判書李秉模曰先定可代之物斷以行之則 繼述之德孰不欽仰乎

上曰右相之言不但的確予之必欲復舊制前此筵席屢示微意此無他深意在於明 聖志紹 盛烈大抵中撤之本非 聖意卿等以下皆所熟知者伊時賊麟敢以宮樣等語乘間劾發上以侵犯下以鉗制於是乎筵臣莫敢有異辭禁遂弛而令遂廢雖欲以宮樣托說命婦章

服也首飾也何莫非宮樣乎此蓋賊麟貪慾僭
奢無所顧忌雖以加髡一事言之大其制侈其
飾高其髻動費千金惟恐不獨別於一世禁令
之下布惠不能窮其所慾常懷不平畢竟有沮
格之舉而後已其罪可勝誅哉况於同氣之間
一主仰贊一則請罷事事以背馳君命家訓為
伎倆即此無臣分無倫理可知是不但朝廷之
罪人抑亦私門之悖弟禁制之申復不須更問
既復之後人孰不懲羹而惕念乎今方別下傳
教申復舊制沿革顛末須有一番敷示後生少

年之未詳事實者庶得以知所未知聞所未聞
初欲含忍今予不言今人孰肯言之先以此舉
條頒示朝紙俾各曉然可也

節目

婦人首飾亦有儀度巾幘冠帔雖不可改而
要之加髡之出未踰數十年其源已乖於倣
華其流漸痼於尚侈轉相效顰遂致騰踊甚
至於富猶蕩產貧或廢倫惟我

先大王痛懲末弊斷自宸衷設禁而祛之令
行六七年國內化之不獨搢紳士夫咸仰變

夷之制抑亦委巷婦孺克遵崇儉之美可久
可大之業莫尚於此而有一賊臣欲逞其貪
慾僭奢之習潛售其欺蔽熒惑之計敢以宮
椽二字肆發 筵席沮敗成憲由茲濫觴去
益難醫此豈我

先大王丕變渝俗之本意也猗我

聖上一心繼述申禁之意累形 筵席而廷臣
莫或對揚弊習未免因循於是乎慨然興感
臨朝詢咨乃以明 聖志紹 盛烈為教廟
議僉同斷之在 上俾我

先大王用夏昭儉之盛德大業燦然復明於

數十年之後行一事而衆善具焉非特鴻臚

之叫閭相臣之納牖有概於聖懷而然耳

從今以往凡為我東臣子者孰敢有歧貳於

今日變流於來許也哉十行絲綸既垂金

石之訓萬世典則永作關和之藏猗歟盛哉

合行事件謹遵下教條列于左為白齊

一士族妻妾閭巷婦女凡係編髻加首본머리本

髮加首머리之制一切禁止為白齊

一代髻之式娘子雙髻머리絲陽髻머리係是

嫁前之制不可用之以編髮後髻본머리의

와 들 너 를 죠 곰 너 허 두 가 됴 으 로 하 죠 為之

為白遣頭上所戴段依前以簇頭里為之母

論綿絮涼竹皆以黑色外裏為白齊

一今此禁制曾出於祛侈之 聖意教是白如

乎諉以代用簇頭里如七寶之類如前飾用

則有改制之名無昭儉之實也凡係首飾金

玉珠貝及真珠唐紵真珠套心之屬一併禁

斷為白齊

一於由味어 기 巨頭味기 두 係是命婦常時所

着人家讌婚所用勿為禁斷為白齊

一簇頭里所飾既載禁條則婚嫁時所用七寶
簇頭里給貫出貫先為禁斷為白乎矣今後
冒犯者毋論首毋女僧並移法司照律定配
至於女僧之稱以雜佩買賣種種可痛可惡
之習在所痛革從前自捕廳隨現痛治法意
有在此後如有如此之類申明舊典付之捕
廳窺察禁斷為白齊

一常賤女人街上露面之類及公私賤並許令

以本髮加首而貼髷

지첩

加髷

리

어

之制各別

禁斷為白遣各官房水賜里醫女針線婢各
營邑女妓段本髮加首之上戴以加里了리 가
叶以示區別等威之意為白乎矣內醫女仍
用冒緞餘則用黑三升為白齊

一京師則以冬至日為限外方則準冬至日發
關關到後二十日為限一齊遵行為白齊
一完限後不遵令者各其家長隨其現發另加
痛繩為白齊

一未盡條件追于磨鍊為白齊

乾隆五十三年十月 日

加壽

一

가례신금소목

연교

금십월초삼일대신제신입 시시에

연교하여골이샤되신머리금녕은호말노덤허골오디
설니회복하리라하노니연하의만전호법이업고소
호냥편호일이업스되너이금녕의신홀노베하되이
와상반타하노니샤치로말미아마검박이로드러가
미만전호미아니라동하^동원로베외이를변호미냥
편호미아니라하를며우리

선왕의일우오신법연이어늘능히기리조습고오래턴
치못하오미곳나의경을^경말하고^말년^년관^관타^타말^말
라이하여일죽그넷법을회복하고말녀호미라오회라

선며왕오십년신평며업이나쇼즈의감히모화호을배

아니오디삼가이루오신법의큰자물샹고호오미그

쇼목이다스시이니마론감필_{감이팔미지}열을이며마

론준천_천머라_라이며마론금_금쥬_쥬미_미술_술라_라호_호며_며마_마론_론호_호훈_훈타_타

인_인호_호미_미라_라호_호이며_며마_마론_론거_거테_테시_시호_호머_머리_리업_업니_니우_우희_희두_두쇼_쇼건_건은_은

드러_{드러}hing_{hing}호_호매_매여_여러_러수_수십_십년_년의_의빅_빅성_성은_은즈_즈홀_홀호_호신_신은_은퇴_퇴

을_을납_납스_스오_오며_며사_사룸_룸마_마다_다침_침점_점호_호던_던환_환을_을면_면호_호여_여시_시나_나아_아

래_래세_세쇼_쇼건_건은_은잠_잠간_간시_시hing_{hing}호_호다_다가_가주_주시_시막_막히_히이_이미_미

션_션왕_왕본_본뜻_뜻에_에나_나오_오시_시미_미아_아니_니신_신줄_줄은_은국_국승_승귀_귀라_라스_스에_에샹_샹고_고

호_호매_매가_가히_히슬_슬퍼_퍼알_알지_지라_라그_그러_러나_나술_술을_을향_향호_호오_오시_시문_문스_스

던_던라_라제_제스_스를_를통_통히_히너_너기_기오_오시_시미_미오_오민_민명_명을_을통_통히_히너_너기_기오_오시_시

미_미니_니금_금호_호심_심도_도쇼_쇼호_호성_성덕_덕이_이시_시며_며hing_{hing}호_호심_심도_도쇼_쇼호_호

성덕이시니 결단하야 감히 다시의논이 너루지 못하
 거시오 혼인을 서루하느니 해논아 직감히 질정하여
 너루지 못하되 가장 고치미 맛당하고 입시하미 쉬온
 자는 선머리에셔 나은 거시 업느고로 졸오디 선머리
 를 금호은곳 성인의 뜻을 북히 읊고 거룩한 공복
 을 닦습느 일단이라 하노라 그러나 도정의논이 혼졸
 이지 못하물 인하여 뜻을 품언지 여러히 예이제 서지
 인순하더니 요수이다 형이 흥되 통이 배의논을 향하
 고 단죄 아래의 정나어 베프니 너 한번 드르매 니연 뜻의
 래하교 두번드르매 환연 현호음 미라 한 지라 오닐 연등
 에이 여대신제신의게 두로므러 단연히 베결단하디
 라대져 선머리 모양되오미 배경의 퇴얏나 나법서의

회얏느냐 그근본을 소고하매 본디 아룸다운 제되야
 니라 비로소 매터력을 싣는 의용이 문득 머리틀 둥히
 너겨 꾸미미 되어 파대 자랑하고 크 호물듯 트아 송상
 하야 점점 상귀 하물 하말이 하귀 호매니 하귀 하태미 하귀 하
 래호자느 가산을 기우리물도라 보지아니 하고 빈구
 호자느 거의 호귀을 폐하기의 나. 하귀 하폐단이 이예극
 하여 시니 고치고 구호바의 잇는 지라 국등부녀의 신
 머리틀 일절이 업시 하노니 신 머리 업시 함은 전혀 사
 치 업시 기를 위호미니 제도를 비록 다르게 하나 꾸미
 기를 네스치 하면 금녕을 거뵈는 뜻이 잇지 이시리
 오그금 하느 법과 뒤 신호법은 묘당의 맛져 소목을 정
 하야 베풀나게 하라 금녕 하호일조는 셔울은 양부동

지동

라날이 하느님 날노 배호하고 제도는 판주니 룬후이 십일
 노 배호 하느님 니부네의복식이정치사_라정_의관계호
 미업다니르지말라오척나의 단단호고심은 성인
 의뜻을 밝히이었고 거룩한공넬을 닛좁는여스클즈
 의잇느니이제로조차배가매가히배샤치로말미아
 마검박호되드러가고등하로배외이름변할거시니
 엇지다만진신태우의출척_동저_허미_하고_감하_며영_화
롭고다 하야감창_하파_기브_미속_의섯_기일_뿐이_리
하미_라 오비록부인녀즈라도또호거의브롬_쳐로_움죽_이고
 그림자_와치_조츠_리니_엇지_진실_노아_름답_고아_름답
 지아니_하리_오우_리동_방풍_습이_호번_법녕_이시_면문
 득_오래_가지_지못_호므로_배구_실말_라르_을삼_느니_녕

을내른오직헿호려호미오오직반_쳐침_미도_라치아나
 과셔호미니외와들은가히_늑으려니와이금녕은가
 히브리오지아닐거스니모_로그신료들이나의도_령
 의섯느_져귀감히다시_쥔머리일스_로써_번거히들니
 리오법이이미완전하고호을_노호정_하여시니금녕
 후의금녕을_쥔지아닌_져느가_당을_좌죄_호몬_곳유
 시_원맛_든관_잇느_지라_즈흡_다너_등외_신셔_들아_모름
 죽이_각각_듯고아_라나_라법_을범_치말_지어_다

거요

금십월초삼일머신유스_당상_입 시_시에
 상이_쥔이_삭의_우정_규의_소등_에쥔_머리_일판_을난_만히
 상의_하야_회계_하란_하피_잇터_니그_과연_어지_하였_스

노령의정김치인은졸오디썬머리페를 석년의바
로소금하시다가도로브리임은머개가히디신홀거
시업손연피라이제 우흐로겨오셔특별이 년교
를느리오샤썬머리를엄금하시고그가히디신홀
거술또호복히마르치산즉스부와녀항이스수로맛
당히조차행하시니고폐가히배기리덜니리이다좌
의정니성원은졸오디썬머리홀가지는실노목금의
고폐되오니가히이제밋처변통아니치못하시이다
우의정채제공은졸오디신이썬머리일의임의호번
품은바를베프고져하시오디져즈음괴병상의게못스
오니병상이지중대말려이려기하시뜻이잇는고로아
직또즈터하시오나실노경경하시미잇더니이다머개즉

금막머흐온 폐썩머리의셔더흐니업는지라 비록선
 비의지궁호집이라 도뉴철십냥전화아니면배미매
 치못흐오니만일성양코저홀진머수뵈금을허비홀
 지니밭풀고집풀밭다른도리업소오니던획잇는재
 또흐멧사람이리잇가고로버아들이셔머는리를취
 흐재그시러곰썩머리를흐지못흐므로버혼가흐연
 지뉴철년의시러곰구고보는데를헿치못흐야배폐
 눈흐기에너르노재손가락을이귀여곰지못홀지라
 이제정신을다둬아득스림을도모흐시는색를당
 흐여살이며털마른민폐라도성심을다흐샤더르시
 거늘이에이막머호폐를무가버하흐지경의툼곳치
 흐시문엇지미니잇가모든의논이배호되가히되신

흠거술난만히상의흠으로말삼하오나 우흐로거
 오셔단연이결정하샤원나라안흐로하여곰다시들
 녀를니지아니케하시면가히디신홀거스특별이절
 목간일이니이긋치아니하면신은두리건디오닐니
 일하여구경^{말갓}이라다홀귀약이잇지아닐가하느이다
 상이존으샤디유스당상이또호소견을베프미가하니
 라호조판셔셔유린은존오디쑤머리금녕을이제니
 르러거뵘뵘히오시면취감히존오디가치아니타하
 리잇가몬져디신하야쓸법제를강구하고인하여들
 니금하느녕을피오미두리건디일이맛당하디합할
 듯하여이다네조판셔니지간은존오디들니폐느가
 히이제미처변통아니치못하올지라하물며 계술

흐시난등일스로배 하교호오시니오직단연히형
호시기예겨오시니이다니조판셔녕창순은준오디
신이또호일이일노배대신의게슈작호배잇스오니녕
상의뜻이또호가히금치아닐거시라호미아니오디
다만가히디신호제되적당이정호거시잇지아닌고
로지의호노배잇노지라진실노샤치를업시코져호
진대이에셔몬져호거시업노지라신이대신의슈작
으로배모든지상의게전호오니소소와듯지아닛노
니업서다닐오디맛당이금호리라호오니모든지상
의말이이러호주은세상의논을가히배미뤄여알거
시오가당의소견이다그러호주부녀의의논이또호
반드시다름이업술지라들의의맛당의금호기니누

그러치아니타흐리잇가형조판셔니병모드르오디
 몬져가히디신홀거술정흐고단연히헝흐오시면
 계술흐시느덕을뉘공경흐야우러지아니하리잇가
 상이콜으샤뒤우상의말이적활홀썸아니라내반드시
 넷제도롤회부고저흐야이천연석의여러번미의를
 보여시니이느다르미업스디라김흔뜻의 성인의
 뜻을북히입고 거룩한공녘을닛잡기예잇는지라
 대저동안의그치문본디 정의아니시니경등이해
 녀이아느밭재라그새적신린한이감히공양독도리
가공중
 발제양이라 이란말노써스이를타창발흐여우흐로써
 침범흐고아래로버검제흐니이에연신이감히다른
 말숨을두지못흐야금되드디여부리고녕갑이드

디여폐하니 비록궁양으로배가탁하야말은하고저
하나명부의장복이며슈식이어느거시궁양이아니
리오이대개적린이탐욕과참샤호미도라새리느배
업서비록썩머리흔일노니를지라도그제도롤크게
하고그우민거슬샤치히하고그위온거슬노외하야
움즉이매천금을허비하야오직원세상의독별치아
닐가저허하니 금녕이느리시매모옴의능히그욕
심을공극히못홀가에분하야상해불평함을느몌다
가필경의저격다말히라고막 하느거죄이신후마니그
죄를가히주극으로이괴라함을며동괴스이에하나
흔우러와찬조하오물극진이하읍고하나흔과하기
를청하야일일마다군상의명과집안의근르치를비

치흥기로 베풀기랑 새락을 삼으니 이 일만 홀디라도 무
 신분흥며 무늬리호를 가히 알지니 이 다만 도성의 죄
 인일뿐아니도 호스문의 패악호아이라 금제를 다시
 복구흥문모름이다 시므롤거시아니 오임의 복구호
 후노사람이 누징깁^배호^는마^라의^정 흥여쳐연이 탐티치
 아니리오 이제보야 호로 별노던 표를 누리와 거듭넷
 법체를 회복흥노니 연혁^치다^말고^라 흥던 전말^와어^뜻리
 략을 모롬즉이 흥번베퍼비미이셔야 후의 난쇼년들
 이스실에즈세치 못흥재거의 시러 품베아지 못흥바
 를알고듯지 못흥바를드를지라 처음은 먹음어참고
 셔흥더니 이제버너르지아니 흥연이제 사람이 누즐
 겨너그리오몬져이거조로베도보의 반포흥여보야

하야곰각각효연제호미가하니라

절목

부인의슈식이또호의되이시니건국판피의넷관적과부인
 래는비록가히샙고치못하나요지코쥔머리나문수
 심년이넘디못호지라그본원이아미등화를방상호
 기의어기고그말취점점샤치를승상호매병드러점
 점서로효빈하야드티여등용다말네이갸벧스호물닐위
 니심하야가음연이라도오히려가산을탕패호고
 난하니호후눈피을폐호매니르더너오직우리

선대왕이말폐를통징하샤 신충으로부터결단하샤
 금녕을베퍼업시하시니녕행호미육칠년의국너화
 하야홀노진신스부들이다이적의제도변호오시물

우러올뿐이 아니라 또 하녀항부유들도 검박 숭상하
시는 아름다움을 드이 준히 하오니 가히 오래고 가히
크온 공업이 이에 오로 미업더니 흔적신이 이셔 그 탐
욕과 참샤흔 버릇을 패히 하려 하여 2 만이 괴 폐하고
형혹하느니 계교를 발뵈야 감히 공양 두즈로 배스 연이
연석의 발하 여 일우오 신법을 저 패하 니 일노 말미아
마 남상 하야 갈 수록 더욱 고치기 어려오니 이 엿디우
리

선대왕의 투박한 풍속을 크게 변하오신 본의 시리오의
흡다우리

경상이 일심으로 계술하샤 다시 금하오실 뜻은 여러
번 연석의 나라 내오시 되 정신이 후도 되 양하오리

업서폐습이인순흥을면치못흥온지라이예개연흥
감흥샤 도회를님흥여두로 못조오샤이에 성
인의뜻을북히옵고 거룩흥오신공녘을닛조오므
로써 하교흥오시니묘당의논이다조조오매결단
흥시문 우희계샤우리

선머왕이둥하를쓰시고검박을북히신 성흥온덕파
큰업으로흥여곰찬연히수십년후의다시북게흥오
시니호일을흥흥오시매모든어지미가자겨오신디
라흥노의규합^{말상소}라^다 흥음과양신의남유^{말다}말^알
래흥오미 성회에유개흥오실뿐아나라이제로조
차빠가므로므릇아동신조되었는재취감히오놀날
기이흥며니후의변난흥리이시리오 열줄스류이

임의금석_又조은_又치몰드리오샤일만뒤예전츙
이거리관화_{알하우씨법년} _{홍이라} _又치곰초물짓조오시니의
여성지라맛당이_{행홀스}건을삼가 하교을_조스와
아래도_렬을_올져

一 소족의_쳐첩과_녀항의_부녀의_므릇들_니싸_하머리의
언_는것과_리 _또머리로_언는_제도를_일절이_금지_하
올_져

一 _또머리_디신_을법은_두가_들을_각각_동쿨_게스_린낭_스
머리와_소양_머리는_혼인_전제_되니_가히_쓰지_못홀_지
라_본머리의_저근_첩지와_들니를_조곰_너허_두가_들은_이
로_또코_깃출_당기로_가마_울녀_새거_쓰지_게호_우되_머
리_우희_쓰는_바는_전대로_족도_리로_배호_되소_오음_과냥

머을무론하고 다 거문 빛 태로 배 것틀 싸 게 할 을 저

一 이제 이 금제는 진실 노샤 치을 업 시 할 업는 영의로
나겨 오 시니 족도 리을 디 신으로 밝다 하고 칠보로
뉴로 전 마 치우며 쓰면 법제을 고치 는 일 함은 이 시나
검박을 북히 는 실은 업 스미 라 무릇 슈식의 금옥 주패
와 밋진 주당 기진 주투 심부 치를 일 병 금단 할 을 저
一 어유미 거 두미 는 명부의 상시 소착이 오 인가의 연 환
소용이 오니 금단 치마 을 저

一 족도 리의 삭민 배 이의 금요 의 실 너 신 주 혼 가 할 셔 스
는 칠보 독도 리 세 주고 세 내 는 이 을 몬 저 금단 할 오 되
녕 후 모 범 할 는 자 을 슈 모 와 너 패 방 스 을 무론 하고 다
법 스로 보커 여 도 를 할 영 정 보 할 되고 중 너 패 의 잡 노

리개미매로일컷고동동가통가오호버르스맛당이
통혈할배니종전으로포청으로부려현발하니를셔
라통승호미법전본의이시니이후의만일이런것이
거든넷법을다시뵈려포청의부쳐구스하고슬퍼금
단호을져

一 상천녀인의길히일쿨드러내고드니스뉴와밋공스
천은다호여곰밋머리로배언세를허하고첩지와신
머리제도느각별이금단호음고각궁방무수리와의
녀와침션비와각영음녀기들은밋머리우히가리마
로버녀배등급구별호스뜻을뵈오되시의녀스인호
여모단으로하고기연스후삼승으로호을져

一 경스노동지날노배호하고외방은동지날발관호를

준하여 관조 본후이 심일의 문양 여 일제히 준하여
적

一 ㅎ을 정ㅎ 후 념을 좃지 아 닌는 자는 각 각 그 가 장을 현
발ㅎ는 대로 설와 각 별이 엄히 다 스 리 올 쥌

一 다 못ㅎ는 건은 조 초 마 련ㅎ 올 쥌

건ㅎ 오 심삼년 심월 일